

# 배우 현빈 “결혼 하고 아이도 있으니 열심히 살아야죠”

## 영화 ‘공조’ 북한 경찰 ‘림철령’ 복귀 전작보다 여유...캐릭터 변화 인상적

“철령이에게 여유가 생겼죠. 철령이가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배우 현빈(40)이 영화 ‘공조’(2017)에서 연기한 북한 경찰 ‘림철령’은 남이 선 사람이었다. 아내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후속작 ‘공조2:인터내셔널’(‘공조2’)에서 림철령은 조금 다른 인물이 돼 있다. 시간이 흘렀고, 아내를 잃은 고통에서 조금은 빠져나온 듯하다.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농담을 할 줄도 안다. 이런 변화는 철령에게만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철령을 연기한 현빈에게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 이를 두고 ‘공조’ 시리즈에서 현빈과 호흡을 맞춘 배우 유해진은 “빈이가 재밌어졌더라”고 말했다. ‘공조2’ 개봉을 앞두고 현빈을

만났다. 그는 “여유로워진 게 맞다”고 했다. “여유 공간을 두고, 둘러보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해진형이 캐치해서 말씀하셨나봐요.”  
그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현빈도 어느덧 40대가 됐다. 다만 최근 그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에 동료 배우인 손예진과 결혼했고, 3개월 후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유부남이 됐고, 아이 아빠가 됐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현빈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철령이 그려던 것처럼, 저도 결혼하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뭔가 바뀌겠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유가 생긴 건 맞고요, 아마 더 열심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도 잘 꾸려나가야죠.”

이번 인터뷰는 ‘공조2’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관심은 자연스럽게 현빈·손예진 부부 이야기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슈퍼스타 부부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었다. 현빈은 시종일관 차분한 여조를 유지하면서도 아내와 아이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고, 큰 축복”이라며 “아이와 얼굴을 마주할 날을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선 현빈과 손예진의 눈웃음을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다. 이들의 웃는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도 그 사진을 봤어요. 예진씨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현빈이 북한 경찰 역할을 맡은 ‘공조’는 2017년에 780만명이 보며 흥행에 대성공했다. 2019년 말에 방송을 시작해 2020년 초에 종영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현빈은 북한 군인 역을 맡았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20%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아시아 국가들



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현빈과 손예진이 결정적으로 가까워진 것 역시 이 작품을 통해서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빈이 북한 사람 연기를 할 때마다 좋은 일이 생

겼다는 얘기가 돌 정도다. 그는 “우연찮게 그렇게 이어진 것 같다”며 “공조2가 끝나고나면 한동안은 북한 말을 쓰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농담을 했다.

## 김민중 “은퇴 무대 될 뻔”...‘히든싱어7’ 1라운드 2표차로 탈락 모면



하이브 스타 출신 가수 겸 배우 김민중이 팬들과 가슴 뭉클한 대결을 펼쳤다.  
2일 방송된 JTBC 예능 ‘히든싱어7’에서는 만능 엔터테이너 김민중이 제작진의 10년 리브풀 끝에 세 번째 원조 가수로 출격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인 만큼 역대급 실력의 팬들이 모창 능력자들이 등장, 김민중은 1라운드 탈락의 고비를 이겨내며 최종 우승을 쟁취했다.

### 10년 리브풀 끝에 세 번째 원조 가수 출격

김민중은 “음악 생활의 공백기가 길어진 탓에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압박감으로 다가왔다”며 ‘히든싱어’ 출연을 고사했던 이유를 밝혔다. 1라운드 미션곡으로 ‘하늘 아래서’가 소개되자 스튜디오에 떴지만 울려 퍼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절친 라인 이경영, 손지창, 김수모까지 진땀을 빼게 만든 모창 능력자들의 실력에 김민중은 “은퇴 무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아찔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라운드 결과, 원조 가수가 단 2표 차로 탈락을 모면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시작부터 탈락 위기를 맞본 김민중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김민중 선곡 공개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민중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한자리에 모인 팬들은 ‘선곡 공개단’을 구성해 코잡기 군무와 함께 2라운드 미션곡인 ‘착한 사랑’을 합창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많은 이들의 성원 속에서 펼쳐진 2라운드에서는 김민중에게 푸른 꽃을 선물하는 모창 능력자들의 깜짝 이벤트가 이어졌다.  
한 모창 능력자는 김민중을 안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진한 포옹의 순간도 잠시, 김민중이 모창 능력자에게 1등을 넘겨주고 2등으로 내려가 험난한 대결이 계속될 것이 예

고됐다.  
“그대와 함께”로 포문을 연 3라운드는 남성 듀오 ‘더 블루’의 손지창까지 합세했다.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연륜을 보여준 김민중은 최종 라운드 진출에 성공하자 “여기까지 왔으니 우승 한번 노력해보겠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곡으로 진행된 4라운드에서는 한 번도 1등을 기록한 적 없던 김민중이 강력한 우승 후보를 제치고 최종 우승을 차지해 원조 가수의 위엄을 뽐냈다. 그는 “10년이 지나고서야 마음속의 큰 산을 넘은 것 같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행복의 시간을 담아 간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우승 공약으로 내걸었던 ‘코카인 댄스’까지 완벽 소화해 웃음을 안겼다.  
이날 방송에서 오랜 세월 그를 좋아해온 팬들이 모창 능력자로 등장해 그 어느 때보다 진한 감동을 안겼다. 특히 ‘한우곱창 김민중’ 김영훈은 “김민중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명복을 빌고 싶었다”며 노래 영상을 올렸던 사실을 고백, 이경영마저 울컥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히든싱어7’ 김민중편은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3.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 선예, ‘원더걸스’ 탈퇴한 이유 밝혀



그들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원더걸스’를 탈퇴한 이유를 밝혔다.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선예가 출연해 오은영 박사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오 박사는 선예에게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 주장이 강하고 본인 생각이 분명해서 독단적이라는 오해를 받은 면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선예는 “네”라고 답한 뒤 “원더걸스를 그만두는 상황이 됐을 때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야기를 들은 정형돈은 “그 당시 대중들은 선

예씨가 원더걸스를 버렸다는 평가를 할 정도”라며 “원더걸스는 선예를 놓고 사랑을 뽐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그게 너무 처음부터 부담이 많았다”며 “(그때) 저의 심리상태를 말하자면 제 안에 몰음표가 많은 상황이었다”며 “아이들이라 10대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됐다. 그래서 노래 내고 인터뷰를 할 때 하나씩 더 조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아빠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두 번의 장례식을 겪으면서 삶에 대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 봤다. 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줌의 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궁극증과 고찰이 생겼다. 분명히 원하던 바를 이루긴 했지만 이 행복이 다인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던 거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더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도 체위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런 고민을 계속 안고 지내는데 예전처럼 무대가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쉬어야 하는 타이밍인가’보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며 “이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 이런 감정들이 멤버들한테까지 미안해졌다. 이런 마음으로 무대를 시고 시계를 하고 있는 게 이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은 오 박사는 “지금의 선예라면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원더걸스를 탈퇴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선예는 “원더걸스 일은 내려놓고 계속 했을 거 같다. 결혼을 놓고 보자면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 팬분들에게도 정리가 돼 커뮤니케이션을 잘 했을 텐데...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너무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저의 의도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다. 제가 원더걸스를 왜 버리겠다. 분이 아니게 상처를 드리게 됐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 첫 보이그룹 ‘엔팀’ 결성...방시혁 팀이름 선물

### 방탄소년단 RM·엔하이픈 파이널 라운드 현장 응원

하이브(HYBE) 레이블즈 재팬의 첫 글로벌 보이그룹이 결성됐다.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은 지난 3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니혼TV, 훌루 인 재팬(Hulu in Japan)을 통해 전 세계 동시 생중계한 글로벌 보이 그룹 데뷔 프로젝트 ‘엔 오디션 - 더 하울링 - 파이널 라운드(&AUDITION - The Howling - FINAL ROUND)’에서 데뷔 그룹 ‘엔팀(&TEAM)’ 멤버 9인이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그룹명 엔팀은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직접 선물한 이름이다. ‘음악과 무대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연결되는 팀’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엔 오디션 - 더 하울링 -’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한 방시혁 의장이 이끄는 하이브의 일본 본사 하이브 재팬(HYBE JAPAN)과 산하 레이블인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이 선보인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방영된 엠넷 ‘아이랜드(I-LAND)’에 출연했던 케이(K)·니콜라스(NICHOLAS)·의주(EU)·타키(TAKI)가 데뷔주로 이미 발탁됐다. ‘아이랜드’는 하이브와 CJ ENM의 합작 레이블 소속인 보이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결성된 오디션이다.  
‘엔 오디션 - 더 하울링 -’은 케이 등 이미 멤버로 확정된 4명과 일본 연습생들의 다양한

퍼포먼스와 성장 이야기를 그려와 주목 받았다.  
이날 일본에서 열린 파이널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케이 등 이미 확정된 멤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데뷔 멤버 5인이 발표됐다. 가장 먼저 발표된 멤버는 조였다. 실력 성장을 보여준 연습생인 그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첫걸음을 떼기 바란다. 앞으로도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비주얼로 눈길을 끈 하루야였다. 하루야는 “앞으로 9명이 함께 더위를 목표로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청량한 음식의 마키, 퍼포먼스가 특이했던 유우마가 데뷔주로 발표됐다. 두 사람은 가족과 팬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앞으로 15인 모두를 향한 응원을 부탁했다.  
마지막 주인공은 후우마였다. 리더십과 안무 창작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그는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케이, 니콜라스, 의주, 타키도 소감을 전하며 벅찬 눈물을 흘렸다. 이날 모습을 지켜본 엔하이픈은 “함께 연습했던 동료로서 감회가 새롭다. 감동적인 무대였고, 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소통하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이날 파이널 라운드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에서는 &TEAM이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데뷔주 멤버들



의 이름도 함께 순위에 올랐다.  
글로벌 K팝 팬들의 온산지인 트위터에서는 ‘엔 오디션 - 더 하울링 -’ 관련 키워드가 미국, 남미, 아시아 등 세계 각국 최상위권을 휩쓸었다.  
특히 이날 파이널 라운드에는 방시혁 의장과 방탄소년단 RM 그리고 엔하이픈이 관객들과 함께 현장에서 엔팀의 탄생 과정을 지켜보는 눈길을 끌었다. 또 스포셜 프로듀서로 지코, 스퀴터 브라운, 이마이 료스케가 참석했다. ‘엔 오디션 - 더 하울링 -’의 멘토이자 프로듀서 피독, 손성덕, 이노우에 사쿠라, 소마 겐다도 자리했다.  
하이브 레이블즈는 이로써 막강한 보이그룹 라인업에 기대주를 추가하게 됐다. 방탄소년단, 엔하이픈 외에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미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이다.

## 54세 김찬우, 나도 이제 ‘품절남’ 합류

### 15세 연하와 결혼

탤런트 김찬우(54)가 총각 딱지를 뗀다.  
김찬우는 4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부는 1983년생으로 김찬우보다 15세 연하이며, 네일숍을 운영 중이다. 4년 교제 끝에 부부 연을 맺는다.  
김찬우는 채널A 예능물 ‘신림수업’에서 결혼 계획을 밝혔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됐다”며 “(2세는) 힘 닿는 데까지 낳으려고 한다. 육아도 내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은 김찬우 여자친구를 만났으며 “굉장히 차분하고 동양적이다. 나디아 느낌이 있다”며 “찬우 형이 들려도 차분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귀띔했고, MC 김원희는 “아내가 보통 미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찬우는 1989년 MBC 공채 19기 탤런트로 데뷔했다.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1990~1994) ‘LA 아리랑’(1995~1996) ‘순풍산부인과’(1998~2000) ‘카이스트’(1999) ‘산너머 남촌에는2’(2012~2014) 등에서 활약했다.